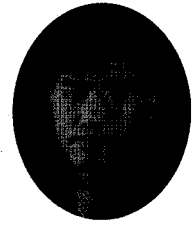


# 제주시 화장실문화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글이 석규 (협의회 과장)

제주시(시장 김태환)는 "화장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는 주제 아래 아름다운 화장실문화개선을 위하여 화장실문화수준향상을 위한 제주시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화장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 각계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과 우수 화장실 사진 및 관련용품 전시회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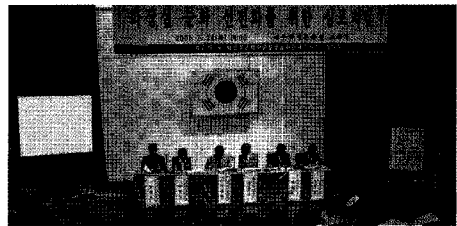
- 일시: 2001년 7월 24일(화) 14:00~16:00
- 장소: 제주시 학생문화원 소극장
- 주최: 제주시, 화장실문화수준향상을 위한 제주시추진 협의회

## 개회식

심포지엄의 1부 개회식에서 김태환 제주시장님과 고석현 추진협의회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2부는 박철민(제주대학교)교수의 사회로 주제 및 사례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태환 제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제주시는 지리적으로 최남단에 위치하고 천혜의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다니다가 올 월드컵을 앞두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진 불결한 화장실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전통문화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흠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장실문제를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이 인식하여 보다 성숙된 화장실문화운동의 계기로 삼고 화장실 선진화 작업에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이번 심포지엄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 2부행사

제주대학 박철민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 첫번째로 전영상교수(동양공업대)의 「첨단 공중화장실의 시설과 설비」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전영상교수는 서론에서 20세기의 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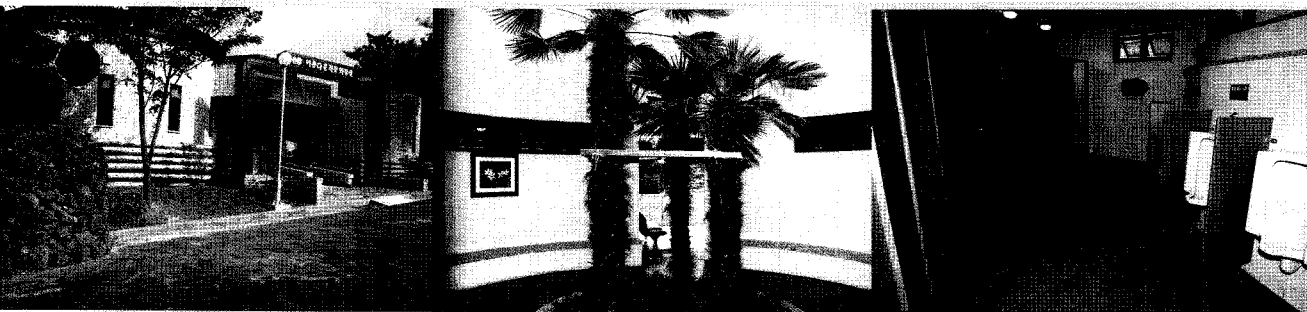


▲심포지엄에 참석한 발표자 (좌로부터 김양보 과장, 표혜령 과장, 박철민 교수, 전영상 교수, 정두숙 부장, 강석봉 연구원)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인간본성인 먹는 것과 배설 하는 것 2가지 뿐이며, 변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물질과 화장실문화의 발전을 이룩한 것을 들고 있다. 앞선 7월 호에서 밝힌바 있듯이 공중화장실은 19세기초 관광산업의 발달로 인간 생활양식에 혁명을 가져다준 발명품 1위가 되었고, 화장지는 5위에 랭크 되어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화장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것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금 강조하였다. 공중화장실의 시설과 설비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설계를 위해 옛 문헌과 국내외의 사례를 고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결는 노력도 필요하며, 첨단 공중화장실의 설계차원에서 건축비는 최대한 줄이고 최상 설비를 사용하여 절전, 절수 등 에너지절약 효과와 더불어 악취를 없애고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 공중화장실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레포초공원화장실



▲절물휴양림 화장실 (가운데 매점이 있는 것이 특징) ▲삼우공원 화장실 내부(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의 배려) ▲정결하고 잘 정돈 되어진 공중화장실 내부

「선진 화장실문화 정착으로의 시민운동」을 발표한 서울화문연의 표체령 사무국장은 화장실 문화개선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에 중 있었던 에피소드와 서울 화문연의 화장실문화개선운동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여 보고 느낀 점과 관광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관리자, 이용자 모두의 의식수준향상을 부탁하였다. 「좋은 화장실을 위한 提言」을 발표한 정두숙 편성부장(KBS제주방송총국)은 제주시와 함께 정결 캠페인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발표하면서 공중화장실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따른 유지관리, 이용자의 의식수준의 향상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아름다운 화장실문화가 완성되고 좋은 화장실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발표하였다.

「장애인화장실의 현황 및 실태」를 발표한 강석봉 연구원(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은 이동 및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대다수의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이 다분히 전시 행정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어 건물을 짓고 나서 개·보수하는 사례가 많아 고가의 비용을 들인 고급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장애인(다목적)화장실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협의회홈페이지 참조)에 맞춰 입구와 통로를 접근하기 쉽

록 설치하고 모든 편의시설을 용도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신체적인 불편이 있는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우리와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제주시 화장실 선진화 추진사례」를 발표한 김양보 과장(제주시청 환경관리과)은 사례발표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도시를 목표로 시민뿐만 아니라 제주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안락한 제주관광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선진화 2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화장실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하여 개선하고자 화장실의 현대화와 정비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장애인 및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부적인 추진방향으로 공중화장실의 설계 및 재료선택, 시공방법 등을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신속화장실 모델을 제시하였고, 각 소관부서를 두어 화장실 유지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민간부분의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하여 매월 좋은 화장실을 평가하여 표창수여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부분 화장실에 관한 수준향상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화장실문화수준향상을 위한 제주시추진협의회가 발족하여 아름다운 화장실문화개선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광객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실 신속에 따른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관공서, 공익기관의 화장실을 개방하고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업소 및 사무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개방을 유도하여 현재 주요도심 49개소에 시민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추후 80개소로 확대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美/공

\* 심포지엄과 더불어 2001년 7월 24일 ~ 25일(2일간) 개최된 우수화장실 사진전 및 화장실 용품전시회에 참여하여 주신 로알토트, 데코판넬, 유한킴벌리, 코네티인터내셔널, 한국월드그린, 시민텍, 동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